

음악(국악) 영재 판별을 위한 부모 관찰정보지의 문항개발 및 적용*

원 영 실**

2011년부터 예술영재교육 선발 과정에 관찰추천제 방식이 적용되었다. 그에 따라 판별과정 1단계에 부모 관찰정보지가 투입되었다. 그러나 사전 준비 없이 도입됨으로써 적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 연구는 관찰추천 영재 판별의 첫 단계에 투입되는 부모 관찰정보지의 문항을 개발하고 그 적용 방안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부모관찰지의 문항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71$ 로 나타났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총 44개의 문항으로 최종 수렴되어 구성된 부모 관찰지의 문항은 추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더욱 높은 수준의 구인타당도를 지지받을 때 음악(국악) 영재교육 현장으로의 실질적인 적용이 가능해 질 것이다.

※ 주제어 : 예술영재교육, 영재판별, 국악영재, 음악영재, 부모관찰정보지,

차 례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음악(국악) 영재 판별을 위한 부모 관찰정보지의 문항개발
- IV. 음악(국악) 영재 판별을 위한 부모 관찰정보지의 적용
- V. 결론 및 논의

* 이 논문은 문화체육관광부 기금(2010) 지원에 의해 연구된 '음악영재 진단평가 모형 개발' 연구의 일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하였음

**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KRIGA) 책임연구원

I. 서론

국내 예술영재교육이 투입되어 온 지 십 여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예술영재성의 개념 및 판별, 교육과정 및 평가, 교육정책 및 재원의 확보, 예술영재교육 전문가의 양성 등, 다면적인 논의를 통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수학·과학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예산의 확보, 예술에 대한 사회심리적 여건의 미비, 영재교육에 대한 예술전문가들의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개별적 논의들은 수렴되지 못한 채 산재해 있다. 국내 영재교육의 흐름 속에서 음악(국악)을 포함한 예술영재교육이 지속적인 정책지원 및 예산의 확보, 보다 긍정적인 사회심리적 여건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보다 탄탄한 예술영재교육의 구조화를 담보로 한다.

2002년 이후부터 투입된 국내 영재교육내의 판별은 2011년 현재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국가수준의 예술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의 판별에 새로 적용된 관찰추천 방식이 그것이다. 관찰추천 방식의 도입의 기저에는 실기 기량에 초점을 두어 진행되어왔던 기존의 영재 판별 방식으로부터 탈피하여 영재에게 내재되어 있는 잠재력과 창의성에 초점을 둔 판별을 지향하고자 하는 국가기관의 의지가 담겨있다. 문제는 사전 준비 없이 새로운 방식이 도입됨으로써 적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예컨대 부모나 교사 관찰 체크리스트가 그 내용 및 구인 타당도를 검증받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됨으로써 결국 1차 판별의 타당성 자체를 지지받지 못하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관찰추천 양식에 대한 사전 교육이나 매뉴얼을 받지 못한 학생의 부모나 교사들은 무엇을 어떻게 보고하고 추천해야할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였다. 학습된 영재성의 판별로부터 탈피하여 예술영재성에 녹아있는 잠재능력 및 창의성, 과제집착력과 같은 동기 구인에 초점을 둔 판별을 지향하는 국가기관의 의지가 실제 영재교육 판별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교육 연구가 필요하다.

아동에게 내재되어 있는 음악(국악) 영재성을 가장 장시간동안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동의 부모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보고하는 관찰정보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그에 따라 영재 판별을 위한 1단계

에 투입되는 검사도구가 된다. 영재를 위한 다단계의 판별 과정에서 1단계 선별이 잘못되면 그 다음 단계의 판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한 부모 관찰정보지의 개발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영재교육 전문가의 과제다. 영재교육 판별의 타당성을 위하여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는 부모 관찰정보지의 문항 개발은 음악(국악) 영재교육의 구조화 및 내실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며 그에 따라 후속되는 각종 정책 및 재원의 마련을 위한 기저가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같은 필요에 의하여 음악(국악) 영재 판별을 위한 부모 관찰정보지의 문항을 개발하고 그 적용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예술영재 교육 구조 속에서 판별은 후속되는 교육과정 및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음악(국악) 영재를 어떻게 판별해 낼지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선행 연구를 자세히 살펴보면 판별이라는 학문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음악(국악) 영재의 선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음악(국악) 영재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부의 지원이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투입되었고, 그에 따라 영재교육 구조 내에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인 심리가 충분히 녹아들기 이전에 사전 준비 없는 예술영재교육을 실시한 것에 기인한 결과로 생각된다. 환언하면 음악(국악) 영재교육의 구조 및 고유한 틀에 관한 충분한 숙고 없이 투입된 영재교육 정책이었기에 선발이나 선별, 판별과 같은 용어들이 혼재되어 있으며, 음악(국악) 영재 교육기관은 영재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재한 상황에서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목적 및 교육과정에 적합한 학습자를 영재로 단순 규정하고, 해당 기관이 원하는 수만명의 학생들을 가려내는데 주목하였기에 판별보다는 선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음악(국악) 영재성의 판별에 대한 이해의 부재가 반영해 주듯이 판별 모형이나 판별의 구조화를 위한 연구 수행은 매우 제한적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국내 몇몇 학자들과 정책기관에 의하여 꾸준히 수행되어 왔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표적인 연구로 성경희(1993)와 최은식(2003)의 음악영재 선발모형 연구와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2006, 2009)의 예술영재교육대상자 선발모형 및 지침서 개발 연구가 있다.

성경희는 음악영재의 선발 과정을 1차 선별과정과 2차 변별 및 판별과정으로 구분하였고, 1차 선별과정에 해당 학생의 부모 및 교사의 관찰정보와 같은 주관적인 판별 방법의 투입을 제안하였다. 최은식은 음악영재 선발을 위한 5단계의 다단계 모형을 제시하였고, 1단계 발굴 단계와 2단계 기초검사 단계에서 부모 및 교사 추천서 및 면담을 투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은 가시적인 영재성의 판별로부터 탈피하여 영재의 잠재성을 판별하기 위한 다섯 가지의 제안을 하였는데, 이 제안 중 네 번째 제안이 부모 및 교사 추천서의 투입이다.

선행 연구들에서 보이듯이 부모 관찰정보는 음악(국악) 영재 판별에서 누락되지 않는 중요한 평가 장치이다. 음악(국악) 영재와 비교적 장시간을 함께 보내는 부모는 일상을 통해 자녀의 음악(국악)에 대한 잠재능력 혹은 동기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인지할 수 있는 존재다. 즉 부모 관찰정보는 그 자체가 해당 영재의 잠재된 영재성을 가려내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음악(국악) 영재성의 판별 시기로 가장 적합한 유치원 시기에는 부모의 관찰정보가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한다(원영실, 2008).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다른 평가 장치보다도 특히 부모의 관찰정보에 많은 비중을 두어 선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Jacobs는 654명의 유치원 아동을 평가하여 웨슬러(Wechsler)의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용 지능검사(Wechsler preschool and primary scale of intelligence, WPPSI)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IQ 125 이상인 19명의 어린이를 찾아내어 그들을 영재로 지정하였다. 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654명 학생들의 부모는 그들의 자녀가 지적으로 영재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학교에서 6개월이 지난 후 12명의 유치원 교사는 그들 학급에서 지적으로 뛰어나다고 생각되었던 어린이의 이름을 지적하도록 요청받았다. 유치원 교사나 부모는 영재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들

은 바가 없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부모는 전부 26명을 지적했는데 그들 중 16명은 영재였고 10명은 아님으로써 영재선정에 대한 부모의 효율성 점수는 76%였고, 유치원 교사는 45명을 지적하였는데 그들 중 2명만 영재로써 유치원 교사의 효율성은 단지 9.5%에 불과했다(Jacobs, J.C. 1971). 이러한 결과는 영재의 잠재능력과 외현화된 특징, 즉 아동의 음악적 능력이나 창의력, 동기에 대한 부모의 관찰정보가 교사에 비하여 얼마만큼 타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준다. 음악(국악) 영재성과 같이 어린 시기에도 충분히 발현될 수 있는 유아의 영재성을 가장 잘, 그리고 꾸준히 관찰하고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영재의 부모다. 비록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부모는 그 영재의 습관 및 태도와 같은 정의적 특성을 통하여 자녀의 우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으며, 그러한 부모의 인지는 자녀로 하여금 전문가를 찾게끔 만들어주는 견인차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므로 부모의 관찰정보는 다른 평가 장치에 비하여 비록 신뢰도 측면에 있어서는 하락된다고 하더라도 타당도의 측면에서는 훨씬 높을 수 있다(원영실, 2008). 문제는 부모의 관찰정보가 다른 어떠한 평가 장치보다도 가장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부모 관찰정보지 투입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악(국악) 영재의 심리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영재성 관찰 문항을 구성하고 설계된 문항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는 것과 같은 좀 더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적용 연구가 필요하다.

Ⅲ. 음악(국악) 영재 판별을 위한 부모 관찰정보지의 문항 개발

1. 부모 관찰정보지의 연구 대상

이 연구에서 개발한 부모 관찰정보지의 문항 분석을 위하여 2010년 7월 8일부터 8월 30일까지 연구자가 직접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정보지를 배부하고 수거하였다. 지방의 경우는 회수봉투에 넣어 우편으로 정보지를 송

부한 뒤 회수하였다.

부모 관찰정보지의 연구 대상은 총 253명으로, 국악이나 서양음악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 132명과, 전공하고 있지 않은 학생 121명의 부모로 구분된다. 전공자의 경우 서울 소재 S예술중학교 및 K예술영재교육원, 강원 및 김천, 전주 소재 예술고 부설 예술영재교육원의 학생 부모를 선정하였다. 이와는 상대적인 의미로써 비전공자에 속하는 서울 소재 S중학교에 재학 중인 평재 121명의 부모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서울 소재 K예술영재교육원 및 강원, 김천, 전주 소재 예술영재교육원 소속 국악 및 서양음악 영재는 영재 판별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선발된 집단이므로 영재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서울 소재 S예술중학교 학생들을 영재 집단으로 설정한 근거는 실질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뚫고 선발된 예술중학교 학생의 음악적 능력이 일반 학교 학생들에 비하여 탁월한 것이 사실이며, 이들이 성장하여 소위 명문대의 음악학과로 진학하고, 해당 분야에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실제 현상으로 관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음악(국악) 영재의 부모라 함은 상기 학생들의 부모를 의미하며, 부모 관찰정보지는 상기 학생의 부모를 대상으로 투입되는 검사지를 의미한다. 유효 사례에 해당되는 연구대상자 총 253명의 특성을 분석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부모 관찰정보지 연구대상자 특성 분석표

구 분		국악영재		서양음악영재		평재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응답대상	부	1	4.2	17	15.7	12	9.8
	모	21	87.5	87	80.6	103	84.4
	부모 모두	2	8.3	4	3.7	4	3.3
부모의 직업	부모 모두 예술계통 종사	1	4.2	1	.9	1	.8
	부(아버지)만 예술계통 종사	2	8.3	6	5.6	1	.8
	모(어머니)만 예술계통 종사	5	20.8	12	11.1	8	6.6
	부모 모두 예술계통 종사안함	16	66.7	89	82.4	111	91.0
부모의 전공	부모 모두 예술계통	1	4.2	1	.9	1	.8
	부(아버지)만 예술계통	2	8.3	7	6.5	1	.8
	모(어머니)만 예술계통	7	29.2	21	19.4	12	9.8
	부모 모두 예술계통 전공안함	12	50.0	77	71.3	106	86.9

구 분		국악영재		서양음악영재		평재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자녀의 예술교육 시작시기	유치원(혹은 그 이전 시기)	9	37.5	46	42.6	54	44.3
	초등학교 1-3학년	4	16.7	40	37.0	37	30.3
	초등학교 4-6학년	10	41.7	21	19.4	13	10.7
	중학교 시기	0	0	0	0	4	3.3
	고등학교 시기	0	0	0	0	0	0
자녀의 예술교육 지속시기	6개월 미만	0	0	1	.9	1	.8
	1년 미만	0	0	3	2.8	8	6.6
	1년-2년 미만	3	12.5	23	21.3	18	14.8
	2년-3년 미만	4	16.7	11	10.2	26	21.3
	3년 이상	17	70.8	70	64.8	54	44.3
	교육무	0	0	0	0	10	8.2
부의학력	대학원 졸업	10	41.7	22	20.4	14	11.5
	대학 졸업	11	45.8	71	65.7	65	53.3
	고등학교 졸업	1	4.2	11	10.2	38	31.1
	중학교 졸업이하	0	0	1	.9	0	0
	무응답	2	8.3	2	1.9	3	2.5
모의학력	대학원 졸업	9	37.5	14	13.0	3	2.5
	대학 졸업	12	50.0	75	69.4	65	53.3
	고등학교 졸업	2	8.3	15	13.9	49	40.2
	중학교 졸업이하	0	0	1	.9	1	.8
	무응답	1	4.2	2	1.9	3	2.5
연봉	1000만원 미만	1	4.2	2	1.9	13	10.7
	1000-3000만원 미만	3	12.5	13	12.0	26	21.3
	3000-5000만원 미만	4	16.7	20	18.5	39	32.0
	5000-8000만원 미만	10	41.7	35	32.4	21	17.2
	8000-1억 미만	3	12.5	16	14.8	10	8.2
	1억 이상	3	12.5	22	20.4	5	4.1

최종 응답자 253명의 응답 대상을 보면, 국악 및 서양음악 영재, 평재 모두 양친 중 모친의 응답 비율이 현저히 높았다. 부모의 직업을 보면, 국악영재의 경우 부모 모두 예술계통 비종사의 비율이 66.7%, 부친이나 모친이 예술계통에 종사하는 비율이 29.1%로 나타났다. 서양음악영재는 부모 모두 예술계통 비종사의 비율이 82.4%, 부친이나 모친이 예술계통에 종사하는 비율이 16.7%로 나타났다. 평재의 경우 부모 모두 예술계통 비종사의 비율이 91.0%로 나타났다. 국악영재 표본집단은 현재 K예술종합학교 산하 예술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

다. 이들은 현재 국내에서 가장 우수한 예술영재 집단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그들의 부모가 다른 집단에 비하여 예술계통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은 흥미로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부모의 전공을 보면, 부친 혹은 모친이 예술계통을 전공한 비율이 국악영재는 37.5%, 서양음악영재는 25.9%, 평재는 10.6%로 나타났다. 좀 더 높은 수준의 영재성을 지녔다고 판단되는 집단의 부모가 예술계통을 전공한 비율이 높았다. 자녀의 예술교육 시작시기를 보면, 국악 및 서양음악 영재의 경우 유치원 혹은 초등학교 시기가 대부분이었고, 중등학교 시기에 시작한 경우는 전무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국악영재의 경우 초등학교 4~6학년 시기가 가장 높았고 서양음악영재의 경우 더 어린 시기인 유치원 시기가 더 높았다. 이는 서양음악영재에 비하여 좀 더 느린 시기에 시작되는 국악영재교육의 특성을 반영해주는 결과다. 평재의 경우도 유치원 시기가 가장 높았으나 영재집단에 비하여 예술교육을 지속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즉 자녀의 예술교육 지속시기를 보면, 국악영재의 경우 70.8%가 3년 이상에 답변하였으며, 서양음악영재의 경우도 64.8%가 3년 이상에 응답하였다. 상대적으로 평재는 44.3%의 비율이 3년 이상에 응답함으로써 국악이나 서양음악영재에 비하여 교육의 지속성이 현저하게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때의 예술교육이라 함은 기악을 비롯한 모든 영역의 음악교육을 포함하며 일반학교를 제외한 학원 교수 혹은 개인 교습을 의미한다. 부(父)의 학력은, 국악영재의 경우 대학원 졸업이 41.7%, 대학 졸업이 45.8%로 대부분 고등교육과정까지 마친 경우로 나타났다. 서양음악영재는 대학원 졸업이 20.4%, 대학 졸업이 65.7%로 국악영재의 경우와 비슷한 수준의 학력을 보였다. 평재는 대학원 졸업이 11.5%, 대학 졸업이 53.3%, 고등학교 졸업이 31.1%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모(母)의 학력을 보면, 국악영재의 경우 대학원 졸업이 37.5%, 대학 졸업이 50.0%로 대부분 고등교육과정을 마친 경우로 나타났다. 서양음악영재는 대학원 졸업이 13.0%, 대학 졸업이 69.4%, 고등학교 졸업이 13.9로 나타났으며, 평재의 경우는 대학원 졸업이 2.5%, 대학 졸업이 53.3%, 고등학교 졸업이 40.2%로 나타났다. 가정의 연봉을 보면, 국악영재의 경우 5000~8000만원 이하에 응답한 비율이 41.7%,

서양음악영재의 경우 32.4%로 나타났다. 평재의 경우는 3000-5000만원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2. 부모 관찰정보지의 개발 과정

음악(국악) 영재성은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한 환경요인 중 가장 중요한 변인이 부모이며, 그만큼 부모 관찰정보지의 중요도는 높다. 이러한 부모 관찰정보지의 문항 개발 및 적용 방법 탐색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수행되었다.

첫째, 음악(국악) 영재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및 영재의 심리학적 구인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둘째, 영재의 심리학적 구인을 중심으로 부모 관찰정보지 문항의 준거를 설정하였다. 셋째, 설정된 준거를 기저로 부모 관찰정보지의 검사문항을 설계하고 구성된 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검증하였다. 넷째, 최종 수정된 부모 관찰정보지의 적용여부 탐색을 위하여 문항 평가를 실시하였다. 국악 및 서양음악 영재, 평재 253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지를 수거하였다. 다섯째, 수거된 검사지에 대한 문항 평가를 통계적 방법에 의하여 검증하였다. 기초통계 및 탐색적 요인분석, Cronbach's α 계수를 통하여 문항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추정한 후 교육적 적용 여부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3. 부모 관찰정보지의 문항 개발

부모 관찰정보지는 음악성 구인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관찰되는 영재의 창의성이나 동기 관련 정보를 보고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검사지다. 판별 전문가는 부모가 보고하는 영재의 심리학적 구인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아동의 잠재성을 선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음악(국악) 영재성 판별을 위한 부모 관찰정보지의 문항 개발을 위해서는 문항의 준거 설정이 전제조건이다. 이 연구의 부모 관찰정보지 문항은 다음과 같은 준거를 기반으로 구성되었다.

<표 2> 부모 관찰정보지 문항의 준거

▶ 내재적 구인

1. 음악성 2. 창의성 3. 동기

▶ 외재적 환경(영재 부모 변인)

1. 음악(국악)에 대한 가치화와 열정
2. 음악(국악)수업에 대한 지지와 해당 영역에서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특정한 영역에 대한 영재성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영재성 안에 내재되어 있는 심리학적 특성을 밝혀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음악(국악) 영재 판별을 위한 부모 관찰정보지의 문항 개발을 위해서는 문항의 준거가 필요한데, 해당 영재에게 내재되어 있는 특성은 그 자체가 판별의 준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재성(giftedness)이란 특정한 분야에 대하여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능력과 창의력, 과제집착력을 포함한 동기가 서로 복합적으로 상호 교류하는 심리학적인 특성을 의미하며(Renzulli, 1978), 영재란 일반인보다 특정한 영역에 대한 높은 수준의 능력과 창의력, 동기를 잠재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규교육과정과는 구별되는 특수한 교육과정이 필요한 사람을 의미한다(원영실, 2008) 이러한 영재성과 영재의 개념에 입각하여 볼 때 결국 음악(국악) 영재성이란 음악성과 창의성, 음악(국악)에 대한 강한 과제집착력이 얹혀있는 심리학적 구인이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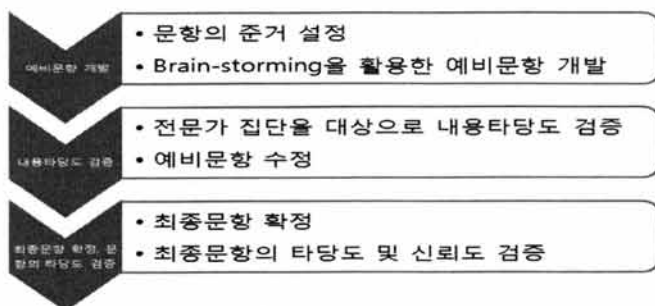
<표 2>에서 보이듯이 음악(국악) 영재의 내재적 구인은 음악성, 창의성, 과제집착력을 포함한 동기다. 창의성 구인에는 음악창의성을 비롯하여 일반창의성 구인도 포함시켰다. 그러나 영재가 지니고 있는 성격 변인은 다양한 양상으로 관찰되는 변수로써 문항의 타당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준거인 동기 변인에서 제외시켰다. 외재적 환경 변인은 내재적 구인을 지속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요인이기에 준거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심리학적 구인에 내포되어 있는 세부 특성을 중심으로 부모 관찰정보지의 문항이 개발되었다.

1) 부모 관찰정보지 문항 개발의 전제 조건

부모 관찰정보지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을 설정하였다. 첫째, 부모 관찰정보지는 해당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모가 없는 경우 부모에 상응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부모 대리인 등)에게도 적용 가능하도록 제작한다. 둘째, 영재의 심리학적 구인을 설명해줄 수 있는 문항을 내용으로 제작한다. 셋째, 부모가 지필식으로 자기보고하는 형태의 검사지로 개발한다. 넷째, 부모 관찰정보지의 문항은 누구나 읽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서술한다. 다섯째, 5점 리커트(likert)척도로 제작한다. 여섯째, 부모 관찰정보지의 채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

2) 부모 관찰정보지의 개발

부모 관찰정보지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개발되었다.



[그림 1] 부모 관찰정보지 문항의 개발 과정

부모 관찰정보지의 개발을 위하여 문항의 준거를 설정하였고, 설정된 준거를 근거로 하여 다수의 예비 문항을 제작하였다. 예비 문항은 브레인 스토밍(brain-storming)기법을 활용하여 개발하였다. 우선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질문으로 연구자는 ‘음악(국악)영재라 하면 어떠한 생각 혹은 느낌이 떠오르는가? 음악(국악) 영재의 특성에 관하여 적어보기’와 같은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설정된 질문은 국악이나 서양음악을 전공하거나 그렇지 않은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에게 제시되었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취합하였다.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이 30~40개, 많게는 50~60개의 특성을 서술 보고해 주었다.

수거된 응답들은 문항의 준거에 따라 정교하게 분류되었다. 우선 수집된 특성들은 두 개의 대영역인 '내재적 특성과 외재적 환경 조건' 영역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두 개의 대영역은 각각 세 개의 소영역과 두 개의 소영역으로 재분류되었다. 즉 제 1 대영역인 내재적 특성 구인에 속하는 문항들은 음악성, 창의성, 동기라는 세 개의 소영역으로, 제 2 대영역인 외재적 환경 조건 특성 문항들은 자녀에 대한 지지와 기대감, 음악에 대한 가치화와 열정이라는 두 개의 소영역으로 재분류되었다. 이러한 소영역의 분류 기준은 미국의 음악영재 교육 프로그램인 TBW(Talent Beyond Word)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찰 체크리스트의 분류 기준을 참고하였다. TBW에 의하면, 음악성 구인 관련 문항들은 리듬이나 소리에 대한 지각 및 인지능력, 일정한 음악을 듣고 신체협응(coordination)할 수 있는 능력 등의 특성을 포함한다. 또한 창의성 구인 관련 문항들은 음악을 듣고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열정을 가지고 강도 높게 연주할 수 있는 표현성, 즉흥연주나 변주, 작곡 능력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동기 구인 관련 문항들은 음악(국악)에 대한 열정, 음악(국악) 과제에 대한 집중력과 인내력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내재적 특성의 소영역에 속하는 심리학적 구인들은 때때로 그 속성이 겹쳐지는 부분도 있었다. 예컨대 음악창의성 구인을 설명하는 문항의 경우 그 내용이 음악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문항 자체를 음악성 영역으로 구성할지 혹은 창의성 영역으로 구성할지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것은 인간에게서 관찰되는 음악영재성이라는 심리학적 구인이 매우 복잡한 속성을 지니고 있기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각 문항의 내용이 표현성을 담고 있는 경우 창의성 영역에 포함시켰다. 외재적 환경 조건의 소영역에 속하는 자녀에 대한 지지와 기대감에 해당되는 문항들은 자녀가 수행하는 음악(국악) 활동에 대하여 부모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앞으로 자녀가 해당

영역(국악이나 서양음악)에서 성공할 것으로 기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음악(국악)에 대한 가치화와 열정 관련 문항들은 영재의 부모가 음악(국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어느 정도의 가치를 두는지, 음악(국악)에 대하여 부모 스스로 어느 정도의 열정을 지니고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된 문항이다.

문항수의 구성비는 내재적 특성 문항이 외재적 환경 조건을 설명하는 문항보다 높은 비율로 구성되었다. 이것은 학습된 음악(국악) 영재성의 평가로부터 탈피하고 영재의 잠재성에 초점을 두어 관찰 문항을 제작하려는 연구자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이다. 이러한 의도에 기반을 두어 제작된 부모 관찰정보지의 문항은 외재적 환경 조건으로부터 지지받지 못한 소외된 잠재 영재를 선별해 내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분류되고 다듬어진 예비 문항들은 국악 혹은 서양음악을 전공하는 10인의 전문가들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10인의 전문가 집단은 국악 및 음악교육전문가, 영재교육 및 측정통계 전문가, 현장의 음악교사들로 구성되었다. 국악 및 음악교육 전문가로는 K예술종합학교에 재직 중인 교수 2인과 C교육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 2인, K예술계 고등학교 교장 1인, 현장 음악교사 3인으로 구성하였다. 이밖에 영재교육 및 측정통계 전문가로 서울 소재 Y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수 2인이 추가 구성되었다. 내용타당도 검증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연구자에 의하여 문항평가용 관찰지로 구성된 문항들을 10인의 전문가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후 수정사항을 회신받았다. 또한 문서상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일일이 전화통화를 하여 합의점을 도출시켰다. 이러한 과정에 소요된 시간은 약 3주 정도이다. 그 이후 10인의 전문가 집단에 의하여 수거된 의견서들을 바탕으로 문항들을 수정·구성한 후, 전문가 집단의 입회하에 2회의 회의 절차를 거쳐서 최종 문항을 확정하였다.

회의를 통하여 각 문항이 해당되는 심리학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논의한 결과 대부분의 문항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공감하였다. 다만 음악 개념에 있어서 다소 의견의 차이를 보인 문항이 있었다. 예컨대 ‘나의 자녀는 음조(tone)와 음높이(pitch)를 구별할 수 있다’에서 음조

(tone)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여 결국 음조라는 어휘를 삭제시켰다. 그 밖에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다양한 음악 개념들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였고 합의된 개념을 중심으로 문항 수정을 하였다.

<표 3> 부모 관찰정보지 예비문항의 내용타당도 검증 기준

- 각 문항은 해당되는 심리학적 구인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가
- 각 문항은 하나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각 문항은 비전문가인 부모가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각 문항은 정확한 어법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 예비문항에 제시된 특징 이외에 또다른 구인 특성은 없는가

또한 각 문항이 하나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두 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문항을 가려내어 분리하였다. 예컨대 ‘나의 자녀는 자신이 들은 음악의 리듬과 멜로디를 바꿔 부르는 능력이 있다’를 ‘나의 자녀는 자신이 들은 음악의 리듬을 바꿔 부르는 능력이 있다. 나의 자녀는 자신이 들은 음악의 멜로디를 바꿔 부르는 능력이 있다’와 같이 두 개의 문항으로 분리시켰다.

각 문항이 비전문가인 부모가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논의 결과, 많은 문항이 좀 더 쉬운 어휘로 수정되었다. 즉 음악을 전공한 부모에게는 이해가 쉬우나 전공하지 않은 부모에게는 이해되기 어려운 문항들이 여러 개 발견되었고 결국 그러한 문항들은 대폭적인 수정을 거칠 수 밖에 없었다. 예컨대 ‘나의 자녀는 양손을 사용하여 반복 형태의 리듬을 유지할 수 있다’와 같은 문항을 ‘나의 자녀는 한 손으로는 2박자, 다른 한손으로는 3박자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다.

이 밖에 문항의 어법에 대한 수정 및 또다른 심리학적 구인에 대한 탐색을 통하여 80개의 예비문항이 82개의 예비문항으로 수정·보완되었다.

최종 수정·보완된 부모 관찰정보지 문항은 5단계 Likert척도 문항지로 제작된 후, 타당도 및 신뢰도 추정을 위한 문항평가용 부모 관찰정보지의 양식으로 최종 구성되었다.

IV. 음악(국악) 영재 판별을 위한 부모 관찰정보지의 적용

새로 제작된 문항이 실제 교육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문항평가를 거쳐서 문항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지지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전문가 집단에 의하여 내용타당도를 지지받고 최종 구성된 부모 관찰정보지의 문항평가를 위하여 SPSS 15.0 for window를 사용하였다. 우선 부모 관찰정보지의 구인타당도 추정을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이란 여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공통된 성향을 보이는 변수(요인)들을 추출하고 변인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잠재된 적은 수의 구조로 축약하거나 요약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계기법이다. 요인분석은 측정 항목의 타당성(validity)을 평가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하여 KMO와 Bartlett 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SPSS 15.0을 사용하여 최대우도 요인추출법(maximum likelihood)을 이용하였다. 요인을 추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유값(eigenvalue)을 1로 하여 분석하였고 베리맥스(varimax) 회전을 이용하여 요인행렬의 각 요인을 단순 구조에 맞도록 단순화시켰다. 부모 관찰정보지의 신뢰도는 내적일관성 신뢰도 방법 중에서 문항 간 측정의 일관성에 의해 추정되는 Cronbach's 계수로 검증하였다.

1. 부모 관찰정보지의 타당도 검증

1) KMO와 Bartlett 검정

KMO(Kaiser-Meyer-Olkin)측도는 변수 쌍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 관찰정보지 문항의 경우 2개의 대영역(내재적 특성, 외재적 환경조건)과 5개의 소영역(음악성, 창의성, 동기, 자녀에 대한 지지와 기대감, 음악에 대한 가치화와 열정)으로 구성되어있고 각 영역은 음악(국악) 영재성이라는 심리학적 구

인을 설명해주는 것을 기본 전제로 설계되었다. 환언하면 2개의 대영역과 5개의 소영역에 해당되는 문항들이 서로 높은 상관관계에 있다면 그러한 문항들로 구성된 부모 관찰정보지는 음악(국악) 영재성을 설명해줄 수 있는 검사도구로 볼 수 있다. 또한 각 문항간의 상관관계가 높을 때 비로소 요인분석이라는 통계기법의 투입이 가능하다. KMO의 값이 .90이상이면 상당히 좋은 것이고, .80이상이면 꽤 좋은 것이며, .70이상이면 적당한 것이고, .60이상이면 평범한 것이고, .50이상은 바람직한 것이며, .50이하이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정한다. 이 연구에서 개발된 부모 관찰정보지의 검정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4> 부모 관찰정보지의 KMO와 Bartlett 검정 결과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935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14947.213
	자유도	3321
	유의확률	.000

<표 4>에서 보이듯이 이 연구에서 개발된 부모 관찰정보지 문항들의 KMO측도는 변수 쌍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상관관계행렬이 단위행렬이란 귀무가설을 검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않으면 요인분석 모델로 사용할 수 없다. 상기의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유의확률 값이 .000이므로 귀무가설이 기각된다. 따라서 부모 관찰정보지의 문항은 요인분석이 적합하며 공통요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2) 요인분석

KMO와 Bartlett 검정을 통하여 요인분석이 적합함이 증명되었다. 그러므로 부모 관찰정보지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설문

문항들이 연구자가 의도했던 영재성 구인을 제대로 표현해 주고 있는지에 관하여 검증하였다.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부모 관찰정보지 요인별 부하량

	Componen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59번문항	.785	.141	.091	-.015	-.004	.028	-.011	.024	.037	-.038	.035	.031	-.019	.173	.106	-.126	-.049	.047	.062
60번문항	.771	.205	.251	.060	-.001	.023	-.016	.047	-.055	.036	-.064	-.076	.019	-.011	-.062	.018	-.025	.095	.108
61번문항	.759	.287	.245	.011	-.019	.049	.036	.028	.046	-.011	-.066	-.012	-.049	.053	-.056	-.138	.011	.075	.007
50번문항	.727	.161	.181	.125	-.029	-.077	-.016	-.027	.103	.031	-.126	.117	-.032	-.090	.007	-.045	.068	-.111	-.067
64번문항	.727	.186	.281	.129	.016	-.014	.025	-.049	.092	.068	-.042	.059	-.052	-.034	-.006	-.024	-.019	-.059	.042
56번문항	.705	.198	.073	.197	.072	.002	.107	.145	-.050	-.197	.137	.182	-.007	-.008	.137	-.054	.124	-.074	-.061
52번문항	.674	.347	.170	.126	.095	.000	.045	-.124	.036	.043	-.027	.046	.110	-.080	-.012	.073	-.023	-.052	.078
58번문항	.666	.135	.148	.151	.074	.050	.043	.100	-.029	-.064	.035	-.014	-.042	.226	.114	-.128	.010	.093	.104
63번문항	.657	.373	.340	.197	.096	.043	.011	.052	.037	.052	-.069	-.028	.018	-.009	-.040	-.060	.028	-.005	.065
28번문항	.620	.231	.443	.075	.118	-.037	.006	.035	.047	.043	.043	-.065	-.043	.158	.095	.133	.022	.072	-.055
54번문항	.610	.350	.103	.186	.167	-.002	.090	.142	-.076	-.093	.063	.046	-.079	-.167	.017	.140	-.040	-.052	.014
62번문항	.576	.417	.288	.247	.104	.068	.009	.053	.022	.051	.060	.026	.072	-.135	-.011	-.077	-.100	-.030	.048
57번문항	.574	.229	.099	.208	.053	.023	.034	.112	-.031	-.191	.143	-.122	.022	.138	.047	-.063	.342	.097	-.081
30번문항	.570	.275	.411	.208	.166	.049	-.003	.047	.017	.135	.066	-.056	-.022	.071	.028	.146	-.073	-.029	.028
51번문항	.549	.388	.200	.257	.221	.021	.103	.093	.032	-.041	-.194	-.060	-.003	-.038	.016	.176	.055	-.032	-.082
27번문항	.544	.404	.392	.240	.059	.071	.012	.110	-.108	.065	.019	-.158	.027	.053	-.016	.121	-.051	-.113	-.019
43번문항	.517	.251	.263	.322	.077	-.079	-.065	.088	-.030	.247	.124	.052	.217	.011	.048	.108	.047	.104	-.027
32번문항	.517	.239	.443	.172	.079	.057	-.049	.028	-.003	.201	.132	-.034	.027	-.031	.177	.121	.173	.184	.056
48번문항	.514	.411	.232	.065	.108	.020	.003	-.049	.048	.209	.135	.103	.014	-.070	-.105	.030	.054	-.078	-.033
47번문항	.510	.259	.156	.144	.113	-.034	.098	.002	-.030	.176	.274	-.017	.140	.069	-.023	.086	.133	.122	-.022
41번문항	.481	.228	.298	.401	.276	.043	-.081	.060	.053	.133	-.203	-.028	.005	-.113	.096	.060	-.084	.055	-.017
33번문항	.464	.165	.416	.242	.121	.044	-.067	.062	-.158	.247	.038	-.019	.000	.005	.097	.152	.118	.101	.085
46번문항	.424	.163	.106	.363	.117	-.050	.054	.230	-.044	.144	-.030	-.099	.154	.084	-.306	.182	-.140	-.094	.099
78번문항	.202	.788	.196	.154	.104	.043	.020	-.084	-.005	-.018	.036	.106	-.111	.107	.090	.059	.035	.089	.036
74번문항	.255	.777	.233	.095	.103	.033	-.010	.125	-.040	.057	.076	.057	-.021	.117	-.008	.053	-.015	.064	.103
80번문항	.232	.773	.209	.042	-.069	.068	.031	-.008	.014	-.036	.044	-.074	.208	-.076	.001	-.069	-.026	-.125	.045
81번문항	.251	.767	.231	.113	.038	.068	.043	-.047	.026	.007	.050	-.073	.086	.025	.085	-.056	-.042	-.093	.048
71번문항	.343	.746	.234	.021	.016	.021	-.009	.064	.034	.209	.080	-.008	-.031	.008	-.009	-.005	.090	-.023	.006
76번문항	.123	.739	.196	.086	.129	.089	-.030	.126	-.045	-.074	-.129	-.083	.121	.087	.088	-.002	-.012	.081	.156
75번문항	.188	.736	.152	.165	.126	.054	-.001	.059	-.024	-.083	.034	.034	-.043	.108	-.033	.120	.015	.149	.124
67번문항	.269	.700	.095	.091	.188	-.064	-.032	.111	-.063	.224	.047	-.111	-.074	-.063	.001	-.012	-.013	-.162	.032
69번문항	.378	.697	.149	.044	.041	-.071	.013	.087	-.079	.281	.084	-.021	-.085	-.008	.008	-.013	-.018	-.190	-.091
77번문항	.306	.691	.155	.114	.071	-.041	-.010	.051	.058	.009	-.105	.126	-.070	.055	-.044	.087	.103	.233	-.113
68번문항	.305	.688	.208	.106	.114	-.068	-.040	.091	-.085	.190	.035	-.006	-.097	-.104	.056	-.088	-.147	-.160	.077
79번문항	.295	.642	.184	.168	.163	.040	-.020	.023	.028	-.130	-.129	.141	-.021	.020	-.012	.038	-.055	.178	-.021
66번문항	.498	.581	.192	.025	.056	-.016	.024	.105	-.082	.297	.109	.033	-.008	-.112	.037	.021	.049	-.094	-.122
70번문항	.188	.470	.368	-.091	-.039	.092	-.019	-.071	-.001	-.122	.114	.057	.252	-.158	.057	-.271	-.205	.043	.094
65번문항	.425	.465	.304	.151	.245	-.015	.040	.097	-.016	.270	.115	-.053	-.091	-.077	.081	.117	.064	.054	-.038
45번문항	.392	.425	.312	.203	.198	.034	.136	.082	.012	.182	.103	-.167	.003	-.110	-.101	.044	-.039	.006	-.057
6번문항	.260	.310	.723	.057	.154	-.015	.057	.052	-.033	.071	-.063	-.024	.033	-.071	.040	-.075	-.036	.057	-.006
21번문항	.245	.276	.675	.057	-.011	.041	.080	-.031	.039	.034	-.039	-.088	-.081	-.033	.125	-.031	-.034	.056	-.033
4번문항	.247	.159	.667	.126	.170	-.006	.100	.010	-.012	.114	-.128	.183	-.033	-.091	-.100	-.068	-.021	-.055	.140
13번문항	.376	.319	.652	.142	.101	.052	.018	.078	-.070	.026	.036	-.116	.019	.050	-.053	.077	-.076	-.080	-.120

	Componen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5변문항	.445	.277	.621	.120	.118	.022	-.006	-.022	.082	.052	-.001	.038	-.034	.091	-.041	.064	.034	-.138	-.049
17변문항	.442	.146	.612	.186	.052	-.019	-.077	.172	-.027	-.175	.165	-.067	-.006	.051	.062	.001	.041	.002	.035
7변문항	.304	.265	.590	.096	.151	.083	-.002	.440	-.024	-.066	.086	.008	.055	-.031	-.020	-.061	.042	.023	-.028
18변문항	.315	.237	.588	.202	.092	-.058	-.096	.058	.099	.056	.014	.045	.066	.195	.000	.046	.099	.014	.001
20변문항	.361	.208	.552	.120	.172	.034	.049	.116	.050	-.015	-.017	.152	.140	.056	.221	.147	-.023	-.031	-.016
3변문항	.251	.242	.531	.204	.439	.052	.013	-.088	.043	.067	.035	.043	-.081	.011	-.152	.021	.024	.027	-.024
22변문항	.423	.290	.528	.232	.199	-.023	.017	.048	.069	.074	.024	-.065	.071	-.105	.148	.145	.030	.095	.008
11변문항	.077	.294	.501	.250	.080	.041	-.069	-.006	-.054	.101	.052	.250	.315	-.045	-.140	-.034	.118	-.105	.028
23변문항	.452	.262	.480	.131	.087	-.019	-.042	.040	-.002	.194	.091	-.016	.132	.127	.074	.168	.061	.067	-.029
19변문항	.414	.170	.422	.219	.222	-.031	.004	.115	.114	.029	.077	.053	.153	.098	.314	.181	-.045	-.098	.001
36변문항	.183	.172	.213	.802	-.045	.042	-.030	-.028	-.045	.019	.057	-.065	-.025	.015	.094	-.063	.085	.039	.022
38변문항	.294	.151	.124	.741	.046	.009	-.030	-.061	.114	.030	.124	.037	.008	.084	.048	-.079	-.050	.093	-.042
39변문항	.281	.197	.163	.740	.027	-.039	-.011	.045	.062	.013	.068	.104	.005	.020	.058	-.012	.062	.190	.029
35변문항	.169	.059	.175	.712	.086	.094	-.011	-.017	-.041	-.033	.015	-.069	-.094	.066	.087	.013	.054	-.065	.066
44변문항	.403	.280	.272	.412	.278	.116	.050	.083	-.063	.131	-.043	.004	.084	-.135	.021	.113	-.146	.064	.038
55변문항	.304	.245	.060	.346	.338	.010	.045	.213	-.140	-.113	-.033	.137	.139	.113	.144	-.021	.004	-.257	.065
1변문항	.119	.214	.253	.026	.781	.046	.018	-.078	.038	-.006	.015	.063	.088	.033	.031	-.118	.082	-.034	-.028
2변문항	.155	.271	.356	.055	.719	.064	-.005	-.027	.086	.015	.029	.007	-.023	.024	-.006	-.098	.034	.004	-.074
25변문항	.288	.217	.345	.159	.381	.021	-.043	.102	.120	.040	.148	-.032	-.034	-.052	.213	.108	.130	-.046	.239
10변문항	.094	.031	.048	.035	.007	.921	-.005	-.013	.008	.016	.030	-.019	.027	.004	.001	.004	.027	-.012	.016
9변문항	-.040	-.070	.150	.076	-.019	.838	.024	.042	-.010	-.089	.017	-.003	-.035	.059	-.034	-.037	.007	-.038	-.016
82변문항	-.012	.189	-.152	-.010	.117	.819	-.021	.000	-.007	.115	-.053	.037	.006	-.075	.053	.056	-.032	.036	-.019
26변문항	.097	-.017	-.008	-.040	-.037	-.014	.912	-.020	-.005	.033	-.001	-.020	-.007	-.014	-.032	-.025	-.016	-.023	.007
31변문항	.027	.022	.050	-.016	.050	.013	.904	-.005	-.002	-.011	.014	.011	-.009	.009	.032	.024	.016	.030	.012
42변문항	.100	.064	.053	-.065	-.045	.015	-.025	.831	.070	.014	.053	-.058	.011	-.014	.020	-.046	.007	.042	-.031
5변문항	.111	.201	.424	.109	-.079	.004	-.003	.563	-.073	.146	-.164	.240	-.027	-.025	.016	.027	.103	.031	.053
49변문항	.025	-.022	.048	.000	-.067	.006	.009	-.044	.836	-.072	.010	-.002	.048	-.017	-.012	-.017	.027	.033	-.051
8변문항	.051	-.067	-.007	.026	.177	-.014	-.018	.091	.766	.123	-.013	-.008	-.097	-.003	.008	.023	-.052	-.069	.071
72변문항	.023	.182	.149	.036	-.004	.036	.028	.034	.063	.490	-.048	.006	.102	.100	.068	-.092	.059	-.004	-.046
29변문항	.033	.084	.007	.153	.035	.003	.010	.011	.004	-.016	.861	.011	.012	-.058	-.043	.043	-.040	-.043	-.007
16변문항	.046	-.022	.029	-.027	.053	.010	-.007	.011	-.006	.003	.013	.906	.005	-.020	.009	.010	-.032	-.008	-.014
12변문항	-.032	-.060	.010	-.060	.036	-.007	-.011	.012	-.034	.060	.008	-.001	.858	.025	.027	.016	-.001	.032	-.006
37변문항	.073	.059	.010	.110	.025	-.002	-.004	-.027	-.022	.098	-.051	-.023	.022	.839	-.055	.035	-.036	-.084	-.013
40변문항	.112	.063	.079	.229	-.022	.011	.004	.022	-.019	.097	-.055	-.002	.023	-.057	.779	-.019	-.014	-.038	-.030
14변문항	-.022	.034	.083	-.074	-.117	.020	-.002	-.049	.003	-.082	.043	.007	.016	.024	-.012	.792	-.003	.009	.010
24변문항	.081	-.068	.030	.049	.081	-.008	-.003	.036	-.021	.054	-.039	-.017	.000	-.040	-.006	.002	.840	-.046	.064
34변문항	.046	-.002	-.009	.125	-.028	-.015	.009	.049	-.032	.009	-.031	-.010	.026	-.069	-.028	.006	-.037	.737	-.007
53변문항	.048	.155	-.026	.096	-.051	-.017	.026	-.029	.027	-.082	-.053	-.017	.035	-.047	-.065	.026	.100	-.051	.806
73변문항	.054	.073	.024	-.103	.013	-.005	-.016	.036	-.064	.303	.181	.023	-.140	.140	.109	-.078	-.193	.173	.369

<표 5>에서 보이듯이 부모 관찰정보지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총 19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그러나 10요인부터 19요인까지의 요인 적재량(factor loading)을 보면 .5 이상인 변수를 요인으로 할 경우 1문항만 존재(10요인 제외)하므로 10~19요인은 제거한 후, 최종 9개 요인으로만 산출하였다.

9개의 요인 중에서 제 1요인은 ‘내재적 동기(과제집착력)’ 구인이며,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0개의 문항 중에서 문항 47, 48, 50, 51, 52, 54, 56, 57, 58, 59, 60, 61, 62, 63, 64번은 연구자의 처음 의도대로 동기 구인 특성을 설명하는 문항으로 그 결과 또한 나타났다. 그러나 문항 27, 28, 30, 31번은 음악(국악) 창의성 구인에 포함시킨 문항이었는데, 요인분석의 결과 동기 구인에 속하는 문항으로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창의성 구인에 대한 부모의 관찰 보고가 과제집착력을 포함한 동기구인과 구별하여 보고하기에는 그 속성이 매우 복잡하고 난해한 구인임을 반증해준다.

제 2요인은 ‘음악(국악)에 대한 부모의 가치화와 열정에 따른 자녀에 대한 지지’이며,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 66, 67, 68, 69, 71, 74, 75, 76, 77, 78, 79, 80, 81번이 이에 해당된다. 이 문항들은 음악(국악)에 대한 부모의 가치화와 열정의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나 지지 요인을 평가해주는 문항이다. 외재적 환경 요인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의 결과는 연구자가 제작한 문항의 내용이 비교적 타당함을 입증해준다.

제 3요인은 ‘음악성’이고,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요인으로 묶인 문항은 3, 4, 6, 7, 12, 13, 15, 17, 18, 20, 21, 22번 문항이다. 이 문항들은 연구자의 처음 의도대로 영재의 심리학적 구인 중에서 음악성 구인을 잘 설명해주는 문항으로 볼 수 있다. 음악성 구인은 음(音) 혹은 리듬에 대한 지각 및 인지능력, 나아가 신체협응(coordination)능력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 연구 결과는 음과 리듬에 대한 자녀의 지각 및 인지능력의 경우 비교적 쉽게 부모에게 관찰되고 그만큼 타당하게 보고될 수 있으나, 자녀의 신체협응 능력에 대한 부모의 관찰보고는 그렇지 못할 수 있음을 반영해준다.

제 4요인은 ‘창의성’이며, 총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4요인으로 묶인 문항은 35, 36, 38, 39번이다. 이 문항들은 주로 음악(국악) 창의성 구인보다는 일반 창의성 구인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제 1요인의 논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부모의 경우 자녀의 창의성을 인지함에 있어서

특정한 영역에 대한 창의성보다는 일반적인 창의성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인지하고 있음을 반영해준다. 즉 부모 관찰정보지의 창의성 구인은 영역 특수 창의성 보다는 일반 창의성을 설명하는 문항으로 구성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 5요인은 '영유아 시기 음악(국악)에 대한 아동의 반응'이며, 총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 문항들이 표현하고 있는 어린 시절의 음악이나 국악에 대한 반응, 즉 신체반응 능력은 음악성 구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요인분석의 결과 음악성 요인으로 묶이지 않았는데, 이는 신체협응의 속성이 부모에게 음악성의 하위 요인으로 인지되고 있지 못함을 반영해 주는 결과로서 제 3요인의 경우와 맥을 같이한다.

제 6요인은 '선율에 대한 지각 및 인지 능력'이며, 총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 9, 10, 82번이 이에 속하는데, 82번 문항의 경우 선율 지각 및 인지 능력과 관련 없는 문항으로 판단되어 82번을 제외한 9번과 10번 문항을 6요인의 최종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아동이 들은 선율을 기억하고 재현하는 것은 음악성의 요인이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 두 문항이 음악성 요인으로 묶이지 않았다. 이 두 문항을 음악성 요인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영재의 부모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항의 내용을 수정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제 7요인으로 묶인 문항은 26번과 31번 문항이다. 26번의 경우 신체협응 능력을, 31번은 즉흥성이나 기초 작곡 능력을 설명하는 문항이다. 이 두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인 원인은 3요인이나 5요인의 경우와 같이 음악성 구인의 하위 요소인 신체협응 능력이나 음악창의성의 속성에 대한 부모의 낮은 이해도에 기인한다.

제 8요인은 문항 5번과 42번으로 구성되었다. 5번은 음악성의 요인으로, 42번은 음악창의성 중에서 표현성의 요인으로 설계한 문항인데, 검증결과 음악성 혹은 창의성 요인으로 묶이지 않고 독립적인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이 문항에 대한 처치는 음악성 요인을 설명해주는 문항으로 두 문항 모두 수정하거나 제거해버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 9요인은 문항 8번과 49번이다. 요인분석의 결과 묶이기는 하였지만 8번문항의 경우 선율지각능력, 즉 음악성을 나타내주며 49번의 경우 동기 요인을 나타내주고 있으므로 검증 결과와는 달리 두 문항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연구자는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8요인의 경우와 같이 동기요인에 속하는 문항으로 재구성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부모 관찰정보지의 요인분석 결과 설명된 총분산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6> 부모 관찰정보지의 설명된 총분산

Component	InitialEigenvalues			ExtractionSumsofSquaredLoadings			RotationSumsofSquaredLoadings		
	Total	%ofVariance	Cumulative%	Total	%ofVariance	Cumulative%	Total	%ofVariance	Cumulative%
1	28.877	35.216	35.216	28.877	35.216	35.216	12.551	15.306	15.306
2	3.681	4.489	39.705	3.681	4.489	39.705	10.596	12.922	28.228
3	2.775	3.384	43.089	2.775	3.384	43.089	8.099	9.876	38.104
4	2.477	3.020	46.110	2.477	3.020	46.110	4.296	5.239	43.343
5	2.239	2.730	48.840	2.239	2.730	48.840	2.559	3.120	46.463
6	1.813	2.211	51.050	1.813	2.211	51.050	2.376	2.897	49.360
7	1.702	2.076	53.126	1.702	2.076	53.126	1.803	2.199	51.559
8	1.476	1.800	54.926	1.476	1.800	54.926	1.680	2.049	53.608
9	1.427	1.740	56.666	1.427	1.740	56.666	1.549	1.889	55.497
10	1.377	1.679	58.345	1.377	1.679	58.345	1.447	1.764	57.261
11	1.359	1.657	60.003	1.359	1.657	60.003	1.368	1.668	58.929
12	1.267	1.545	61.547	1.267	1.545	61.547	1.346	1.641	60.571
13	1.245	1.518	63.066	1.245	1.518	63.066	1.325	1.616	62.187
14	1.170	1.427	64.492	1.170	1.427	64.492	1.270	1.549	63.736
15	1.154	1.407	65.900	1.154	1.407	65.900	1.259	1.535	65.271
16	1.129	1.377	67.277	1.129	1.377	67.277	1.257	1.533	66.804
17	1.074	1.310	68.587	1.074	1.310	68.587	1.241	1.514	68.318
18	1.068	1.303	69.890	1.068	1.303	69.890	1.220	1.488	69.806
19	1.058	1.290	71.180	1.058	1.290	71.180	1.127	1.374	71.180
20	.996	1.215	72.395						
21	.995	1.214	73.609						
22	.958	1.168	74.777						
23	.913	1.113	75.890						
24	.878	1.071	76.961						
25	.799	.974	77.935						
26	.789	.962	78.898						
27	.765	.934	79.831						
28	.735	.896	80.728						
29	.695	.847	81.575						
30	.665	.811	82.386						
31	.641	.782	83.167						
32	.614	.748	83.916						
33	.559	.682	84.598						
34	.553	.674	85.271						

Component	Initial Eigenvalues			Extraction Sums of Squared Loadings			Rotation Sums of Squared Loadings		
	Total	% of Variance	Cumulative%	Total	% of Variance	Cumulative%	Total	% of Variance	Cumulative%
35	.534	.651	85.922						
36	.516	.629	86.551						
37	.491	.599	87.150						
38	.483	.589	87.739						
39	.462	.564	88.303						
40	.452	.551	88.854						
41	.440	.537	89.391						
42	.425	.519	89.910						
43	.421	.514	90.424						
44	.395	.481	90.905						
45	.368	.449	91.354						
46	.358	.437	91.791						
47	.349	.426	92.217						
48	.327	.399	92.616						
49	.310	.378	92.994						
50	.303	.369	93.363						
51	.297	.362	93.726						
52	.284	.347	94.072						
53	.273	.333	94.406						
54	.261	.318	94.723						
55	.254	.310	95.034						
56	.247	.302	95.335						
57	.240	.293	95.628						
58	.227	.277	95.905						
59	.217	.265	96.170						
60	.212	.259	96.428						
61	.206	.251	96.679						
62	.202	.246	96.925						
63	.193	.235	97.160						
64	.187	.228	97.388						
65	.179	.218	97.607						
66	.168	.205	97.812						
67	.165	.201	98.013						
68	.156	.190	98.202						
69	.151	.184	98.386						
70	.139	.170	98.556						
71	.133	.162	98.718						
72	.129	.157	98.875						
73	.124	.151	99.026						
74	.115	.140	99.166						
75	.112	.137	99.303						
76	.106	.129	99.432						
77	.093	.113	99.546						
78	.082	.100	99.645						
79	.080	.098	99.743						
80	.077	.094	99.837						
81	.068	.083	99.920						
82	.066	.080	100.000						

<표 6>을 통하여 부모 관찰정보지를 구성하고 있는 9개의 요인은 전체 데이터의 55.497%를 설명(예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연구의 통계 검증이 탐색적 요인분석에 그쳤기 때문에 기인된 결과로 생각된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수렴된 문항을 재구성하고 추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더욱 높은 수준의 타당도를 확보할 때 부모 관찰정보지의 교육 현장 적용은 가능해질 것이다.

2. 부모 관찰정보지의 신뢰도 검증

음악(국악) 영재성 판별을 위하여 개발된 부모 관찰정보지 문항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Cronbach's α)는 아래의 <표 7>에서 보이듯이 전체 통합신뢰도 .771로 나타났다. 전체 통합 신뢰도란 국악영재와 서양음악영재, 평재를 모두 통합하여 추정한 결과로써 가장 의미있는 수치로 볼 수 있다. 전체 통합 신뢰도 수준이 .771로 나타남으로써 부모 관찰정보지 문항의 신뢰도 수준은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체 통합 신뢰도 이외에 국악 및 서양음악 영재, 평재를 구분하여 추정한 결과 또한 <표 7>에 나타나있다.

<표 7> 부모 관찰정보지의 신뢰도

대영역	소영역	문항번호	신뢰도			
			전체 통합	서양음악영재	국악영재	평재
내재적 특성	음악성	1 ~ 26	.410	.630	.967	.337
	창의성	27 ~ 44	.444	.421	.957	.371
	동 기	45 ~ 64	.673	.921	.964	.488
내재적 특성 전체			.699	.784	.985	.606
외재적 특성	지지와 기대	65 ~ 73	.410	.283	.178	.360
	가치와 열정	74 ~ 82	.491	.890	.227	.445
외재적 특성 전체			.597	.598	.292	.544
전체 신뢰도			.771	.845	.792	.694

하위 영역별 신뢰도를 보면, 내재적 특성에 대한 전체 통합 신뢰도는 .699, 외재적 특성에 대한 전체 통합 신뢰도는 .597로 나타났다. 즉 내재적 특성에 대한 신뢰도가 외재적 특성에 비하여 더욱 안정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동기 구인에 대한 신뢰도가 .673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결과는 부모 관찰정보 문항이 음악(국악) 영재의 심리학적 구인 중 동기 구인 평가에 적절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반영해 준다.

서양음악영재를 대상으로 신뢰도 추정한 결과를 보면 Cronbach's α 계수 .845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소영역중 동기 구인(내재적 특성)과 음악에 대한 부모의 가치화와 열정(외재적 특성) 요인은 .921과 .890으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그러나 소영역 중 창의성(내재적 특성)과 부모의 지지와 기대(외재적 특성)는 .421과 .283으로 비교적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

국악영재를 대상으로 신뢰도 추정한 결과를 보면 Cronbach's α 계수 .79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하위 영역별 신뢰도를 보면 내재적 특성 관련 요인에 대한 신뢰도는 .985로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외재적 특성 관련 요인에 대한 신뢰도는 .292로 낮게 나타났다. 국악영재 표본집단의 경우 국내에서 가장 높은 국악영재성을 지니고 있는 대상들임에도 불구하고 외재적 특성에 관한 신뢰도 계수가 낮게 나왔다는 점이 흥미로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들의 부모는 다른 집단에 비하여 예술계통 전공자 및 종사자의 비율이 높았다. 자녀에 대한 기대 수준 및 해당 영역에 대한 가치화의 기준이 여타 예술계통 비전공자 부모보다 더욱 엄격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하여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평재를 대상으로 신뢰도 추정한 결과를 보면 Cronbach's α 계수 .694로 나타났다. 즉 국악 및 서양음악 영재에 비하여 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재적 특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난 국악 및 서양음악 영재의 경우와는 상대적으로 평재의 경우 내재적 특성에 대한 신뢰도가 .606으로 나타났다. 외재적 특성에 대한 평재의 신뢰도는 서양음악영재의 경우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V. 결론 및 논의

예술영재교육은 해당 영재성의 개념 정의와 규정된 개념에 입각한 판별로부터 시작된다. 판별은 후속 과정으로 투입되는 예술영재 교육과정의 방향 설정 및 적절한 교육내용의 선정에 밑거름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새롭게 적용된 관찰추천제 판별 방식의 첫 단계에 투입되는 부모 관찰정보지는 판별의 타당성 확보, 나아가 후속 교육과정 및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판별도구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목적은 음악(국악) 영재성 판별을 위한 부모 관찰정보지 문항을 개발하고 실제 영재교육 현장으로의 적용여부 탐색을 위한 타당도 및 신뢰도를 추정함에 있었다.

국내의 상황 여건을 고려한 부모 관찰정보지의 문항 개발을 위하여 첫째 음악(국악) 영재성 구인을 탐색한 후 문항 개발의 준거를 설정하였고, 둘째 설정된 준거를 바탕으로 예비 문항을 구성한 후, 음악(국악) 및 교육 전문가, 현장 음악교사들과 함께 문항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셋째 내용타당도 검증 후 수정 보완된 관찰 문항은 실제 교육 현장으로의 적용여부 탐색을 위하여 문항 평가를 받았고 그에 따라 타당도 및 신뢰도를 추정하였다.

음악(국악) 영재의 심리학적 구인에 입각하여 제작된 부모 관찰정보지의 문항은 두 개의 대영역과 다섯 개의 소영역 특성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음악성, 일반창의성, 과제집착력, 외재적 환경 특성의 4요인, 총 44개의 문항으로 최종 수렴되었다. 부모 관찰정보지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의 결과 설명된 총분산은 55.497%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 관찰정보지 문항에 대한 평가가 탐색적 요인분석에 그쳤음에 기인된 결과로 생각된다. 비록 요인분석에 의한 문항의 타당도 수준이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준다. 우선 부모 관찰정보지를 통하여 영재의 내재적 특성과 외재적 환경 특성을 모두 평가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임이 드러

났다. 영재의 부모가 영재의 잠재 능력을 가장 잘 보고해주는 존재임은 분명하지만, 영재성의 속성 자체가 매우 복잡한 심리학적 특성이기에 그러한 특성을 문항의 내용으로 모두 담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부모 관찰정보지는 영재의 내재적 특성 중에서 음악성과 동기(과제집착력) 구인을 평가하는데 유리하다. 나아가 영재성을 지속시키는 외재적 환경 특성 구인을 평가하는데 타당한 검사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음악 창의성 구인의 경우는 부모 관찰정보지를 통한 평가가 수월치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특수한 영역에 대한 창의성, 즉 음악 창의성보다는 일반 창의성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문항을 구성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특수 영역의 창의성 구인이 비전문가인 부모에게 명확하게 인지되기에는 분명한 제한점을 지니며, 이러한 제한점은 예술영재성에 대한 정량 평가의 한계를 나타내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음악(국악) 영재성의 일면을 담당하는 음악(국악) 창의성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인 검사도구를 활용한 양적 평가 방법보다는 장시간에 걸친 관찰과 숙련됨을 기저로 한 질적 평가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수 있음을 반증해 주는 결과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수렴된 문항은 아동의 내재적 동기 구인을 표현하고 있는 47, 48, 50, 51, 52, 54, 56, 57, 58, 59, 60, 61, 62, 63, 64번 문항과, 외재적 환경 특성 요인을 내용으로 하는 66, 67, 68, 69, 71, 74, 75, 76, 77, 78, 79, 80, 81번 문항, 아동의 음악성을 설명해주는 3, 4, 6, 7, 12, 13, 15, 17, 18, 20, 21, 22번 문항, 일반 창의성을 나타내주는 35, 36, 38, 39번 문항이다. 즉 요인분석의 결과 부모 관찰정보지는 아동에게 내재되어 있는 음악성 및 일반 창의성, 동기 구인을 나타내주는 문항과 아동의 외재적 환경 특성을 설명해주는 총 44개의 문항으로 최종 수렴되었다. 이 문항들 외에 독립된 요인으로 묶인 문항들은 상기의 하위 요인에 속하도록 문항을 수정·보완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44개의 문항으로 최종 수렴된 부모 관찰정보지의 문항은 후속 연구를 통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검증받을 때 더욱 높은 수준의 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실제 예술영재교육 현장으로의 투입이

가능해질 것이다.

부모 관찰정보지 문항의 신뢰도 추정 결과를 보면, 평재를 제외한 모든 집단의 전체 신뢰도 수준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재적 특성 문항에 대한 신뢰도가 외재적 특성 문항에 대한 신뢰도보다 모든 영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외재적 특성을 표현하는 문항보다 영재의 내재적 특성을 설명해주는 문항이 더욱 안정적임을 반영해주는 결과다.

부모 관찰정보지는 아동에게 내재되어 있는 음악(국악) 영재성 구인 특성을 보고해주는 검사 도구로써 영재의 자기 서술식(소위 자기소개서)보다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닌 검사도구이다. 즉 개발된 부모 관찰정보지 문항의 가장 큰 장점은 판별의 객관성 유지와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의 절약이다. 물론 영재 부모의 관찰 문항 보고가 주관성을 완전히 배제했다고는 볼 수 없다. 아무리 훌륭한 검사도구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완벽한 평가를 수행하는 검사도구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과학적인 검증 절차에 의하여 제작된 관찰 정보지 문항의 경우 막연한 추천서나 자기소개서 형식에 의한 보고와는 차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차별성이란 곧 검사문항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의미한다. 국가 수준의 영재 판별 첫 단계에 투입되는 부모 관찰정보지 문항은 결국 1차 및 후속되는 다단계 판별 과정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음악(국악) 영재성의 경우 어린 연령에 발현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어린 연령의 잠재 영재를 대상으로 투입되는 영재의 자기보고식 소개서는 오히려 타당도가 낮을 수 있다. 어린 연령의 음악(국악) 영재에게 내재되어 있는 영재성을 가장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관찰해 온 당사자가 아동의 부모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이 연구에서 개발된 부모 관찰정보지의 문항은 어린 연령의 잠재 영재를 선별하기에 적합한 검사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 무엇보다도 부모 관찰정보지의 문항은 지금까지 산재해 있던 음악(국악) 영재의 심리학적 구인 특성을 과학적인 검증 절차를 통하여 수렴해주고, 수렴된 문항을 중심으로 좀 더 객관적인 검사도구 개발을 위한 후속 연구의 발판을 마련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 고 문 헌

- 문화체육관광부 (2006). **예술영재 교육과정 연구**. 서울: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 (2006). **예술영재교육 발전방안 연구**. 서울: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 (2006). **예술영재교육대상자 선발모형 개발 연구(I)**. 서울: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 (2007). **예술영재교육대상자 선발모형 개발 연구(II)**. 서울: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 (2009). **음악영재교육을 위한 선발지침서 개발**. 서울: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 (2010). **음악영재 진단평가 모형 개발 - 국악 및 서양음악 분야**. 서울: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 (2010) **국악 및 서양음악 영재성의 질적 평가 모형**. 서울: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 성경희 (1993). **한국에서의 음악영재 발굴과 교육의 방향. 음악인력 양성을 위한 새로운 방향 모색**. 한국예술종합학교 부설 한국예술 연구소 개소기념 심포지움.
- 성태제 (1991). **문항반응입문**. 서울: 양서원.
- 성태제 (2005). **현대교육평가**. 서울: 학지사.
- 원영실 (2005). 음악 우수아의 개념 및 조건, 판별에 관한 소고. **음악연구**, 35, 307-334.
- 원영실 (2008). 국악영재 판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음악과 문화**, 19, 109-146.
- 원영실 (2009). **국악영재 판별을 위한 가락 및 리듬 인지능력 검사도구 개발**.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이순목 (2003). **요인분석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 이종성 (2003). *교육연구의 설계와 분석*. 서울: 교학연구사.
- 최은식 (2003). *음악영재*. 예술영재교육 육성계획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부설 한국예술연구소.
- Jacobs, J. C. (1971). Effectiveness of teacher and parent identification of gifted children as function of school level. *Psychology in school*, 8.
- Renzulli, J. S. (1978). What makes giftedness? Reexamining of definition. *Phi Delta Kappan*. 60, 180-184, 261.

ABSTRACT

A Study on the Observation Scale for Parents of the Gifted(OSPG) in Korean Traditional and Western Music

Won, YoungSil

The new method of identification(so called the method of observation & recommendation) for the gifted in korean traditional and western music was applied to the gifted education in Korea. So the check-list for parents of the gifted was involved in the 1st step of identification. But it emerged that many problems with relevant to validity of identification. The government requires the differentiated structure of gifted education. The valid discrimination tool is necessary for the arrangement of education policy and getting a national budget, supporting of positive psycho-social mood to the gifted.

I have developed the observation scale for parents of the gifted (OSPG) in korean traditional and western music that is one of scale for discrimination and identification. Furthermore I have verified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OSPG. As a result of reliability analysis,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of OSPG verified cronbach's $\alpha = .771$. In order to construct valid OSPG, a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with 82 items. As a result of factor analysis, I collected 44 items finally. The validity of OSPG will be supported after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ill have conducted through follow-up research.

I expect the input of OSPG to gifted educational fields, and rising diverse debates about the method of identification to the gifted in Korean traditional and Western music.

key words: The identification of the giftedness, The giftedness in korean traditional and western music, The observation scale for parents of the gifted(OSPG).

투고일: 1월 31일, 심사(수정)일: 3월 14일(3월 23일), 게재확정일: 4월 13일

<부 록> 부모 관찰정보지 문항 예시

대 영역	소 영역	문항 번호	판별 준거 문 항 내 용	정 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내 재 적 특 성	음 악 성	1	나의 자녀는 영아 시절(생후24개월 이내), 음악(국악)을 들으면 그 음악에 맞추어 몸을 흔들고는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자녀는 영·유아시절(생후~4세), 음악(국악)을 들으면 즉시 반응(음악에 맞추어 박수를 친다거나 등)을 보였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자녀는 유아시절(5세~7세), 새로운 노래를 들으면 비교적 정확하게 따라 부를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4	타인이 부르는 곡조가 틀렸을 때, 나의 자녀는 '틀렸다'라는 지적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타인이 부르는 노래나 연주의 음정이 틀리거나 불안하게 표현될 때, 나의 자녀는 '기분이 나쁘다. 혹은 시끄럽고 불쾌하다'라는 말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자녀는 음정의 차이(혹은 변화)를 잘 지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자녀는 리듬에 대한 예민한 지각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의 자녀는 선율을 쉽게 지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의 자녀는 노래를 들으면 가사보다 선율을 먼저 기억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의 자녀는 일정한 선율을 듣고 그 선율을 비교적 쉽게 재현한다.	①	②	③	④	④
		11	나의 자녀는 주위의 소리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의 자녀는 주변의 소음에 예민하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의 자녀는 도래에 비하여 음악(국악)선율을 빨리 외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의 자녀는 음악(국악) 교사의 가창이나 연주 모방을 쉽게 잘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의 자녀는 악기 및 노래를 도래에 비하여 빨리 습득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의 자녀는 여가의 시간에 노래를 부를 때에도 음정과 박자를 정확하게 지켜서 부르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의 자녀는 스스로 음악을 분석하면서 듣거나 연주한다. (예: 화성진행이나 주계선을 따라가며 듣기 등)	①	②	③	④	⑤
		18	나의 자녀는 다양한 악기의 소리를 잘 구별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의 자녀는 몸 전체로 박자를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의 자녀는 리듬의 시작과 끝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의 자녀는 음높이(pitch)를 구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의 자녀는 음악의 역동성(dynamics)을 도래에 비하여 잘 느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의 자녀는 한번 들은 멜로디를 한 옥타브 위로 잘 따라 부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의 자녀는 합창(혹은 합주)을 할 때 주변 소리에 간섭받지 않고 자기가 맡은 파트를 잘 해낸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의 자녀는 음악에 맞추어 움직이거나 멈출 수 있다.(예: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다가 음악이 멈추면 거기에 맞추어 춤을 멈춘다 등)	①	②	③	④	⑤
		26	나의 자녀는 한손으로는 2박자, 다른 한손으로는 3박자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대영역	소영역	문항 번호	관별 준거	정 도				
			문 항 내 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창 의 성		27	나의 자녀는 또래 아이들에 비하여 음악(국악)이 주는 영감을 더 많이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의 자녀는 연주나 가창을 할 때 음악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표현해 낸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의 자녀는 연주나 가창을 할 때 음악의 구조를 빠르게 파악하여 표현해 낸다.	①	②	③	④	⑤
		30	나의 자녀는 음악적 표현이 또래 아이들에 비하여 우수하다.	①	②	③	④	⑤
		31	나의 자녀는 한변들은 음악(혹은 국악)에 변화를 주는 능력이 우수하다.	①	②	③	④	⑤
		32	나의 자녀는 또래 아이들에 비하여 즉흥연주 능력이 우수하다.	①	②	③	④	⑤
		33	나의 자녀는 자신이 들은 음악의 리듬을 바꿔 부르는 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4	나의 자녀는 자신이 들은 음악의 멜로디를 바꿔 부르는 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5	나의 자녀는 호기심이 많고 질문을 많이 한다.	①	②	③	④	⑤
		36	나의 자녀는 또래 아이들에 비하여 '영동한 제안이나 생각'으로 부모를 놀라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37	나의 자녀는 유머감각이 있는 아이이다.	①	②	③	④	⑤
		38	나의 자녀는 주변으로부터 '독특한 아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39	나의 자녀는 자기 스스로 '나는 독특하고 개성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0	나의 자녀는 음악(국악)연주시,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41	나의 자녀는 음악(국악)을 들은 후 그 음악에 대한 자신의 느낌 및 감정을 잘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42	나의 자녀는 음악을 듣고 느낀 자신의 감정을 타인과 교류하고 타인으로부터 공감받기를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43	나의 자녀는 타인의 연주를 듣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평가한다.	①	②	③	④	⑤
		44	나의 자녀는 또래 아이들과 비교하여 볼 때 풍부한 정서(감정 및 표현력)를 소유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동 기		45	나의 자녀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국악)에 대하여 끊임없는 관심을 보였다.	①	②	③	④	⑤
		46	음악(국악)을 듣거나 음악(국악)관련 과제를 수행할 때 방해물을 받으면 나의 자녀는 짜증을 낸다.	①	②	③	④	⑤
		47	나의 자녀는 음악(국악)을 스스로 만들거나, 음악과 관련있는 일을 할 기회를 많이 갖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8	나의 자녀는 음악동아리 활동(예: 중창단, 합창단, 관현악단 등)에 즐거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49	나의 자녀는 악기나 노래 연습을 즐겨워 한다.	①	②	③	④	⑤
		50	나의 자녀는 자기마음에 드는 소리가 날 때까지 연습 한다.	①	②	③	④	⑤
		51	나의 자녀는 음악(국악)을 듣고 자주 감동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52	나의 자녀는 악기를 연주할 때 몰입한다.	①	②	③	④	⑤
		53	나의 자녀는 '음악(국악)이 없으면 불행한 인생이었을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는 한다.	①	②	③	④	⑤
		54	나의 자녀는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혹은 국악)을 전정으로 즐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5	나의 자녀는 일상 생활(예: 샤워를 하거나 걸어다닐 때 등) 중에 노래를 흥얼거리는 습관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대 영역	소 영역	문항 번호	판별 준거		정 도				
			문 항 내 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6	나의 자녀는 장시간 연습하거나 음악(국악)을 감상을 해도 지루해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57	나의 자녀는 다양한 음악이론이나 음악역사에 지속적인 흥미를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58	나의 자녀는 음악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주위의 사물이나 벌어지는 상황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59	나의 자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연습한다.		①	②	③	④	⑤
		60	나의 자녀는 난이도가 있는 곡목을 스스로 선택하여 포기하지 않고 완주한다.		①	②	③	④	⑤
		61	나의 자녀는 음악(국악) 과제를 끈질기게 연습한다.		①	②	③	④	⑤
		62	나의 자녀는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음악에 대하여 호기심을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63	나의 자녀는 음악(국악) 과제를 수행할 때 집중도가 높다.		①	②	③	④	⑤
외 재 관 경 특 성	지 지 와 기 대 관 영	64	나의 자녀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창이나 악기연습을 스스로 한다.		①	②	③	④	⑤
		65	나의 자녀는 음악(국악)에 대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		①	②	③	④	⑤
		66	나의 자녀는 음악(국악) 영역에서 성공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7	나는 내 자녀의 음악(국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①	②	③	④	⑤
		68	자녀가 원한다면 나는 내 자녀의 음악태세를 기꺼이 지원해 주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69	나는 내 자녀가 앞으로 음악(국악) 분야의 직업에 종사하기를 기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70	나의 자녀가 음악(국악) 영역에서 성공하려면 부모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1	나의 지원으로 인하여 내 자녀의 음악능력이 날로 향상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2	나는 내 자녀의 음악태세이나 연습에 관심을 갖고있다		①	②	③	④	⑤
		73	나는 내 자녀의 음악성을 인정하고 더욱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74	나의 삶에 있어서 음악(국악)은 매우 중요한 요소에 속한다.		①	②	③	④	⑤
		75	만약 음악(국악)이 없었다면 나의 삶은 불행하였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6	인간에게 있어서 음악(국악)은 매우 중대한 삶의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7	나는 현재 연주 활동이나 연주회 관람 등 다양한 음악(국악)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8	나는 내 삶이 다할 때까지 할 수 있는 한(또는 허락된다면) 다양한 음악 활동에 참가하기를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79	음악(국악)을 듣고 감상할 때가 빈번하다.		①	②	③	④	⑤
		80	음악(국악) 수업은 내 자녀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과이다.		①	②	③	④	⑤
		81	음악교과는 국어나 수학과 같은 교과만큼 중요한 교과이다.		①	②	③	④	⑤
		82	나는 내가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점을 후회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